

부산에서 쏘아올린 희망...광주·전남체육 미래 밝히다



전남수 광주시체육회장이 29년 만에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낸 수피아여고 농구부를 격려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에 육상 여자일반부 1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은빈을 시상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제공>

‘스타 탄생’·풍성한 신기록...제106회 부산 전국체전 열전 7일 마무리

광주, 수피아여고 ‘금빛 감동’...광주체고 조정 ‘3연패’·복싱 한영훈 4연패 전남, 최지우·서예지·이은빈·이아영 ‘금’...전남육상 새로운 도약 청신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주·전남 선수단은 눈부신 투혼과 열정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다관왕과 풍성한 기록을 쏟아내며 광주·전남체육 미래를 밝게 했다.

광주는 금메달 53개, 은메달 48개, 동메달 62개 등 총 163개의 메달과 3관2천640점이라는 고득점으로 종합 11위를 달성하는 선전을 펼쳤다.

광주 여자 농구의 자존심 수피아여고는 결승에서 서울 선일여고를 꺾고 제77회 전국체전(1996년) 이후 29년 만에 ‘금빛 감동’을 선사했다.

야구 명문 광주일고도 제99회(2018년) 전북체

전 이후 7년 만에 금메달을 수확했다.

조정에서는 3연패가 나왔다. ‘전국 최강’ 광주체고 여자 조정팀은 쿼드러플스컬과 더블스컬(경량급)에서 금메달을 따며 대회 3연패를 기록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남자 1,600m 계주에서 3연패, 편수영 양지원(광주시체육회)·태권도 김혜규(조선대)·사격 김도훈(한체대)·근대5종 전용태와 계주팀(광주시청)·레슬링 이재혁(광주체고)·박인성(광주체고), 양궁 오예진(광주여대)은 각각 2연패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 복싱 희망 한영훈(동구청)은 라이트웰터급에 출전해 ‘금빛 주먹’을 날리며 전국체전 4연패라는 대업을 이뤘다.

이밖에 신악 신은철(더월)이 스포츠클라이밍

속도에서 한국신기록을, 편수영 신재이(광주체고)가 표면200m에서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양궁 오예진(광주여대) 등 4명이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광주의 메달 사냥에 힘을 보탰다.

전남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의 대표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부산 체전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갖고 비상하는 선수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전 성과는 광주 체육발전과 전국체전 성적향상을 위해 선수 주변확대와 팀 창단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사상 첫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 유치 등 광주가 국제 스포츠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주시체육회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금메달 41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75개를 획득, 목표로 했던 3관2천점대 득점과 종합 12위 수성에는 실패했지만 전체 메달수는 전년도(금 38, 은 38, 동 79)에 비해 증가했으며, 전 종목 고른 활약과 새로운 스타들의 등장으로 자체대

전남체육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체전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최지우(광양하이텍고)는 중등부 제패 후 고등부 첫 출전에서 400m 금메달을 포함해 4연패(소년체전 포함) 3관왕, 서예지(광양하이텍고)도 여고부 세단뛰기에서 2연패를 달성, 전남 육상의 저력과 세대교체를 입증했다.

이밖에 이은빈(해남군청)이 여자일반부 100m에서 4연패(고등부 포함)를 달성, 새로운 단거리 여왕의 등장을 알렸다. 이아영(광양시청)은 여자일반부 4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2연패를 이어갔다.

또한, 고등부 4x400mR(믹스) 대회신기록(3분 30초61) 등 계주종목(4x400mR 고등부 믹스, 여고부, 여자일반부)에서도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격에서는 각종 진기록을 쏟아냈다.

권협준(전남연맹)이 남자일반부 50m 소총 3자세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수여고 여자 고등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작

성했다.

다관왕과 다연패도 두드러졌다.

김하은(나주시청)은 사이클 경기에서 단체스프린트, 경륜, 스포린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을 차지했고, 근대5종 김영하(전남도청)는 남자일반부 개인·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모두 휩쓸며 2관왕에 올랐다.

우수 남자일반부의 김민수(전남도청) 역시 산타 60kg급 4연패, 유도의 김지정(순천시청)은 -70kg급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올해 대회는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신기록과 연패 행진 속에서 신예 선수들이 눈에 띄게 성장한 의미 있는 대회였다”며 “전남체육의 미래를 이끌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만큼, 이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선수 개인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팀 창단과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통해 전남체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대학 최강’아닌 ‘국내 최강’ 향해 매진”

광주여대 오예진, 제106회 전국체전 여자대학부 양궁3관왕

‘금빛 여운’ 접고 다시 초심으로,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대비 강훈련 내년 실업무대에서 더 성장한 선수로 광주 올림픽 금맥 잇고 싶어

“마지막 대학 무대인 전국체전을 금메달로 마무리해 기쁩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여자대학부 결승에서 ‘파리 올림픽 3관왕’ 임시현(한체대)을 꺾고 존재감을 입증한 오예진(광주여대)은 “체전을 앞두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컨디션 끌어올렸다”며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김성은 감독님과 함께 기술과 체력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오예진은 이번 체전 거리별 경기에서 임시현과 각축을 벌이며 30m·50m·개인전에서 금메달, 60m와 70m(대회신)에서는 임시현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하며 개인전 전종목 메달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체전 결승전에서 임시현(한국체대)에게 패했던 오예진은 이번 대회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오예진은 “임시현과의 대결이 솔직한 의식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려 했다”며 “부산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임을 짧게 가져가며 과감하게 쏘는 연습을 많이했다. 과감한 전략이 주효했던 같다”고 말했다.

대학 무대를 마무리한 소감은 “시원섭섭”이다.

오예진은 “개인전 보다 단체전 우승을 위해 팀원들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8강에서 탈락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래도 개인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광주는행 입단을 앞둔 오예진은 “최미선, 안산 등 좋은 선배들과 더 좋은 환경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대학 때보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저의 진가를 터트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같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게 목표”라며 “김성은 감독님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



광주시체육회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진 오예진.

었고 감독님께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금빛 여운’도 잠시, 오예진은 다시 활시위를 당긴다.

오예진은 오는 30일부터 11월4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열리는 2025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준비 중이다.

오예진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선발전에 집중하겠다”며 “항상 발전하는 선수로써 경기 최선을 다해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희중 기자

‘천년의 빛’ 영광에서 전남생활체육대축전 개막

내일부터 24개 종목 열전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5일 영광스포티움체육관에서 개막한다. 이 오는 25일 영광스포티움 공설운동장 등 영광군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축전은 지난해 4월 영광에서 열린 ‘제63회 전남체육대회’, 올해 5월 개최된 ‘제20회 전남아르스생활체육대축전’에 이어, 전남도 3대 종합체육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다.

‘뭉쳐라 전남의 힘, 천년의 빛 영광에서’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모인 생활체육인 6천734명의 선수가 참가해, 28개 경기장에서 24개 종목(정식 23, 민속 1) 치러진다.

이번 대축전 시·군별 참가인원은 영암군이 373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 365명, 화순군 348명, 광양시 346명 순이며 종목별로 참가인원은 축구 48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배드민턴 432명, 야구 388명, 배구 333명, 체조 283명, 족구 279명 순이다.

대회의 주요 시상은 입상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스포츠730상)과 함께 참여상 5개

부문 시군체육회(화합, 질서, 응원, 감투), 종목단체(우수종목단체) 및 종목별(개인·단체 1-3위) 시상식이 이루어진다.

25일 오후 3시50분 영광스포티움체육관에서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오후 4시30분 개회식이 진행되며 개회식에서는 인기가수 로이킴, 나태주, 진해성, 김용빈이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드론라이프쇼가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또한, 대회기간 중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 기원과 시·군간 화합을 도모하는 ‘22개 시·군 어울림 화합 한마당행사’가 만남의 광장 특별무대에서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영광스포티움체육관 인근에서는 22개 시·군별 홍보부스와 푸드트럭 등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전망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영광에서 개최되는 전남 3대 종합 체육대회 피날레를 장식할 제3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선수단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청 김옥금, 뜻깊은 나눔 훈훈

3년째 (사)광주시 근육장애인협회 찾아 기부금 300만원 전달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김옥금은 23일 (사)광주시 근육장애인협회를 찾아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광주 장애인양궁을 빛낸 김옥금은 “올해 큰 수술을 하고 회복기에 큰 대회를 치러 걱정이 많았는데,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작게나마 광주시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3년째 근육장애인협회를 찾아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 선수는 “저도 근육장애인이자 누구보다도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연유로 근육장애인협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광주시청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꽃꽂게 설 수 있었다. 오늘의 작은 나눔이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년 아시아 패럴게임에 이어 LA 패럴림픽을 목표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김 선



수는 “저를 응원해 주신 주위의 많은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강도높은 훈련에 매진하겠다”며 “장애를 넘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장애인들에게 작지만 큰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